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신지체 중학생의 음악수업관찰연구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희 성

# 정신지체 중학생의 음악수업관찰연구

김 미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 희 성

# 인 준 서

김 희성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음악은 정인지체학생들에게 언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학생 스스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일조를 한다. 따라서 정인지체학생의 음악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인지발달의 특성과 현재의 인지발달 단계를 알아보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 방법을 구안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인지체 중학생의 인지상태와 음악반응을 알아보고, 향후 음악수업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인지체 중학생의 음악수업 참여관찰은 2010년 10월 5일부터 2010년 11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가창과 리듬반응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관찰대상은 정인지체 중학생 중 경도에 해당하는 학생 2명과 중등도에 해당하는 학생 4명이었다.

10회에 걸친 음악수업관찰은 가창반응검사 5회<1회, 4회, 6회, 8회, 9회>와 리듬반응검사 5회< 2회, 3회, 5회, 7회, 10회>로 실시하였으며, 1회는 제재곡 ‘새싹들이다’로 제재곡의 중심코드를 교사의 지시에 맞게 핸드벨로 연주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2회는 제재곡 ‘개구리’로 큰북과 작은북을 이용하여 제재곡의 강박과 약박을 연주해보았다. 3회는 제재곡 ‘오! 필승코리아’로 2002년 월드컵당시 유행하던 리듬패턴을 캐스터내츠로 연주하였고, 4회는 제재곡 ‘고기잡이’로 8분쉽표를 공부하였으며, 5회는 제재곡 ‘어린이 왈츠’로 3/4박자에 맞추어 손뼉치기를 하였다. 6회는 제재곡 ‘숲 속을 걸어요’로 소리의 높고 낮음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고, 7회는 제재곡 ‘노래하자 춤추자’로 곡에 맞추어 자유로이 신체를 이용한 리듬치기를 하였다. 8회는 제재곡 ‘돌과 물’로 곡의 중간에 재미있는 소리를 넣어서 노래를 불렀고, 9회는 제재곡 ‘초록바다’로 기본 발성을 배운후 노래를 배웠다. 마지막 10회는 ‘우

리산 우리강'으로 징과 팽과리를 사용하여 리듬연주를 하였다.

10회에 대한 음악수업관찰 결과 정인지체학생들은 음정의 습득보다는 리듬의 습득이 빨랐고, 가창에 있어 화성적 반주보다는 주선율로 연주하여 배울 때 훨씬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 결과를 통해 얻은 정인지체중학생의 음악수업에 대한 제언은 제재곡을 배울 때 화성적인 반주보다는 주선율을 통해 노래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과 보호관찰급인 최종도학생은 지각·표현활동보다는 감상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인지체학생의 수업지도안 작성은 논문으로 많이 나와 있으나 관찰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것처럼 정인지체학생들의 음악관찰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3. 연구의 제한점 .....	4
4. 선행연구 .....	5
II. 이론적 배경 .....	8
1. 특수교육의 정의와 목적 .....	8
2. 정인지체학생의 특성 .....	10
3. Piaget의 인지발달론 .....	19
4. 질적연구 .....	22
III. 음악수업관찰의 연구방법 .....	23
1. 연구방법 .....	23
2. 연구대상 .....	24
3. 연구절차 .....	29
4. 참여관찰 .....	30
5. 연구결과 .....	69

IV. 결론 및 제언 ..... 77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관찰학생의 특징 .....	28
<표 2> 연구절차 .....	29
<표 3> 가창반응 검사표 (가창 1회) .....	33
<표 4> 리듬반응 검사표 (리듬 1회) .....	37
<표 5 > 리듬반응 검사표 (리듬 2회) .....	41
<표 6> 가창반응 검사표 (가창 2회) .....	45
<표 7> 리듬반응 검사표 (리듬 3회) .....	49
<표 8> 가창반응 검사표 (가창 3회) .....	53
<표 9> 리듬반응 검사표 (리듬 4회) .....	57
<표 10> 가창반응 검사표 (가창 4회) .....	60
<표 11> 가창반응 검사표 (가창 5회) .....	64
<표 12> 리듬반응 검사표 (리듬 5회) .....	68
<표 13> 관찰결과 공통된 가창반응 검사결과표 .....	69
<표 14> 관찰결과 공통된 리듬반응 검사결과표 .....	71
<표 15> 관찰결과 개별적 리듬 반응 검사표 .....	73
<표 16> 관찰결과 개별적 가창반응 검사표 .....	74

## 악 보 목 차

<악보 1> 새싹들이다 .....	30
<악보 2> 개구리 .....	34
<악보 3> 오! 필승코리아 .....	38
<악보 4> 고기잡이 .....	42
<악보 5> 어린이왈츠 .....	46
<악보 6> 숲 속을 걸어요 .....	50
<악보 7> 소리의 높고 낮음을 구별해 보기 .....	50
<악보 8> 노래하자 춤추자 .....	54
<악보 9> 돌과 물 .....	58
<악보 10> 초록바다 .....	61
<악보 11> 우리 산 우리 강 .....	65

## 그 립 목 차

<그림1> 정인지체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	12
<그림 2> 정인지체인의 구성비율 .....	18
<그림 3> 연습시킨 리듬패턴 .....	38
<그림 4> 제재곡에 재미있는 소리 넣어 노래 부르기 .....	58

## 차 트 목 차

<차트 1> 가창반응검사 결과 차트 .....	70
<차트 2> 리듬반응검사 결과 차트 .....	32

## 사 진 목 차

<사진 1> 2002 월드컵거리 응원 .....	40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고유 영역으로서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인간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승화시키기도 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 또한 음악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발달시켜주기도 한다.

음악 교육은 고대부터 중요시 되어왔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은 인간의 파토스 (인간의 감정을 말함)를 조절하는 절대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의 음악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바람직한 음악적 성장을 이루도록 음악적 체험의 기회를 요구한다.

인류는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류 사회 구성원의 능력을 계발·신장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해왔다. 현대 사회에서도 특히 공교육은 경제·사회적 지위, 인종, 종교 및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 개체의 교육적 요구에 최적한 기회를 제공하여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sup>1)</sup>

인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정인지체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특수교육은 신체적, 심리적, 지적 수행능력에서 독특한 요구를 가진 아동들에게 특별히 계획되고 설계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므로 통합교육과 개별교육등으로 적절하게 적용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교

---

1) 김영옥외,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2005) p.9

육과 구별될 수 있다.

음악은 특수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이용되어 왔다. 음악은 특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고 활동적인 영역의 하나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정인지체학생에게 있어서 음악교육은 정서의 순화와 조화로운 심미적 세계의 경험과 욕구 불만적 과잉행동, 감각이나 운동력 지체 등의 교정에 영향을 준다.

정인지체 학생들은 지적인 지체와 사회적인 능력이 낮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이들의 마음속의 감정이나 개념의 추출로서 비언어적인 대상자 또는 이해와 공조의 매개체로서 음악을 통한 바람직한 인간성 성장을 조성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음악은 정인지체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도우며, 생활을 밝게 해주고 산만한 분위기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고, 즐거움과 슬픔 등의 정서를 음악 활동을 통해 표현하게 된다.

정인지체학생은 일반학생들과 같은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보지만 발달의 정도가 지체된다고 할 수 있다. 인지발달이 지체된 정인지체 학생에게는 더욱 더 그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음악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가창을 통한 언어지도, 발성지도를 통한 바른 음성 갖기, 가창으로 인한 호흡훈련 및 자신감 찾기,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자가표현과 리듬감을 살릴 수 있는 음악적인 면이 있다. 따라서 음악은 정인지체 학생들의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고, 이들의 요구와 기능 정도에 따라 변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학습의 모든 영역에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인지체 학생들에게 음악교육은 정서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발달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인지체 학생을 위한 음악교육은 음악을 듣고, 활동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의 감

정을 다양한 신체적 표현 및 기악, 가창의 연주 활동을 통해 참여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인지체 학생의 음악 지도에 있어서 학생의 인지발달의 특성과 현재의 인지발달단계를 알아보고 발달단계에 맞는 교수 방법을 구안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인지체 중학생의 인지상태와 음악반응을 알아보고, 음악수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정인지체 학생은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개인차가 무척 크다. 그래서 정인지체 학생들은 연령별로 구분하기 보다는 장애정도에 따라 경도 정인지체, 중등도 정인지체, 최종도 정인지체로 구분한다. 이 연구는 정인지체 중학생 중 음악적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경도 및 중등도 정인지체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정인지체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인지체 학생의 인지발달단계를 파악하고, 총 10회에 걸쳐 가창과 리듬을 중심으로 음악반응을 알아보았다.

정인지체학생들의 관찰을 위한 음악수업은 매주 2회(화·목)로 10회 실시하였고 1회당 소요시간은 40분이 소요되었다. 수업을 마치기 10분전에는 관찰대상인 학생 6명을 개인별로 또는 그룹으로 관찰하여 기록에 남겼다.

###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정인지체 특수학교 학생중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경도 및 중등도 정인지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음악 능력 탐색 대상은 여러 특수학교 중 경기도 소재 학교 중등부 6명을 관찰 대상으로 한다.

셋째, 개인사생활보호차원으로 인해 관찰대상학생의 실명을 표기하지 않았고, 학생A 혹은 학생B로 표기하였으며, 수업시연시간에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지 않았다.

넷째, 정인지체중학생의 음악수업관찰은 가창과 리듬을 중심으로만 관찰하였다.

#### 4. 선행연구의 고찰

정신지체학생을 대상으로 쓴 음악교육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하람은 “정신지체아의 음악반응 연구”에서 정신지체아의 음악 반응 조사 및 분석과 알맞은 곡의 기준 설정 그리고 정신지체아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 제작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정신지체아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과정 속으로 음악을 도입시켜야 한다는 점과 특수학교 음악수업에 적합한 음악교재개발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정신지체장애학생의 장애정도가 경도, 중도, 중등도, 최종도로 나뉘어져 있고, 그 장애정도에 따라 큰 인지격차를 보이는 데도 이 연구에서는 장애정도의 명확한 구분이 없이 음악반응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김태희는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음악수업실태 및 특수교사의 음악전담 교사에 대한 인식”에서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음악수업은 전반적으로 가창이나 리듬악기에만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영역의 활동 및 다양한 악기 소리에 대한 경험 부족, 그리고 다양한 악기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정신지체학생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의 인지발달 단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음악수업을 진행해야 더욱 효과적인 교육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혜은은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예능교과서 분석과 음악교과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연구”에서 음악교육이 정신지체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한하며 학생들의 자기표현욕구와 정서함양,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의 향

상 등을 위해 올바른 음악교육과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 자료만 가지고는 여러 수준에 맞춘 음악수업으로 이끌어 가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신지체 장애학생의 인지발달론과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종구는 “인지발달론에 근거한 초등학교 음악 개념 지도 방안”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을 중심으로 인지발달론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음악 개념 지도 방안을 구안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인지적 발달 수준·음악적 수준과 단계에 맞는 음악적 성숙을 위한 효과적인 음악적 개념지도 학습 방법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정신지체학생들도 인지발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음악 지도 방법들을 개발하고 구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강선희는 “ 인지발달이론의 음악교육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음악적 특성을 연구하고 교사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 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교수방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정신지체 학생의 인지발달수준에 맞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된 연구를 고찰한 결과, 인지발달 단계에 따른 알맞은 음악지도방안 모색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학습방법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지발달론에 근거한 학습방안을 제시한 논문은 적었다. 또한 인지발달론에 근거한 학습지도안을 연구하였다고 해도 학습지도안에 대한 관찰연구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지발달론을 근거로 하여 정신지체 학생들의 인지

상태를 파악하고, 정인지체학생들의 음악수업시간에 참여관찰함으로써 가창과 리듬반응을 관찰하였다. 문헌연구와 참여관찰연구로 정인지체중학생의 음악수업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Ⅱ.이론적 배경

### 1. 특수교육의 정의와 목적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간 평등의 원칙에서 개인이 지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각자의 개성 개발, 신장,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복지를 개인의 행복으로 구현하는 데 그 이념을 두고 있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위한 교과교육과 장차 직업생활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직업교육 그리고 언어치료, 물리치료, 행동교정, 작업치료, 감각훈련 등 장애를 교정해 주는 치료교육을 균형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은 일반 혹은 정상으로 일컬어지는 것으로부터 지적으로나 감각기능, 신체운동, 건강, 정서, 의사소통의 기능면에서 일정한 편차 내지 이상성을 지니는 아동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자료 특별히 훈련된 전문교사에 의해 특수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다.<sup>2)</sup>

특수교육은 1855년 프랑스 파리 농학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R. S. Hall(의사이며 여선교사)에 의해 주도된 평양

---

2) 김영옥외,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2005) p.13

맹학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특수교육학이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20세기 중엽에 와서 비로서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수교육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한말에 새로운 개혁사상으로 등장한 개화사상이다. 이는 그 보급과 실현을 교육에 의하여 성취시키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의 실용화·민주화·구국화를 강조하는 신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특수교육의 목적은 일반교육에 대비한 공통성과 아동이 가진 장애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고,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생활로 유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기초를 닦게 하는 데 있다. 또한 심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특수교육을 진흥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생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교육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일반교육의 교육 목적과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아는 일반 정상 아동보다 신체적·정신적·정서 및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으므로 그 장애나 결손을 보상할 교육과정의 설정이 필요하고 특수한 교육계획과 전문적인 교사 자질, 특수한 매체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교육의 목적은 일반교육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고, 장애아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며 특수한 특수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 목표는 다음의 예와 같이 장애를 보상할 수 있는 영역의 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sup>3)</sup>

첫째, 장애 아동의 잔존 능력 예를 들면 잔존 시력, 잔존 청력 혹은 근력등을 계발 활용하되 보상적인 측면의 능력 계발도 아울러 주목해야 할

---

3) 김영옥외,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2005) p.24

것이다.

둘째, 직업교육 활동시 이들의 적성을 발견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직종을 권장하고 직업적 기능을 미리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장래에 대한 희망, 즉 재활에 대한 동기를 끊임없이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특수교육과 재활대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 민주적 사회체제의 발전, 정보과학기술의 혁신, 의학의 발달 등으로 국가사회는 특수교육과 재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그 시행령이나 규칙에 따라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학교·학급의 증설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교육과정의 제정 및 개정과 이에 따른 교사용지도서의 개발·보급,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직업지도 및 조기교육에 의한 평생교육의 체제확립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2. 정인지체학생의 특성

### 가. 정인지체의 정의<sup>4)</sup>

정인지체는 정신의 발달이 뒤져 있는 상태로 유전적 원인, 또는 후천적 질병이나 뇌의 장애로 인하여 청년기 전에 지능 발달이 저지되어 자기 신변의 일을 처리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또한 현재의 기능에 실질적인 한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18세 이전에 나타나

---

4) 김원경외 14명, 『최신특수교육학』, (학지사), p.227-228

며 현저하게 평균 이하의 낮은 지적 기능과 동시에 의사 소통, 자기 보호, 가정 생활, 사회적 기술, 지역 사회 활동, 여가, 직업과 같은 적응 기술 중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에서 적응상의 한계를 보인다.

2002년 미국정신지체협회(AAMR)는 정신지체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필수적인 가정을 명시하였다.

첫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능상의 제한상은 개인의 또래집단과 문화에 전형적인 지역사회 환경 맥락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타당한 진단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 감각, 운동, 행동 요인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언어적 다양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이 보이고 있는 특정능력의 제한성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다른 강점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넷째, 개인이 지닌 제한점을 묘사하는 목적은 필요한 지원의 프로파일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적절한 개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정신지체인의 생활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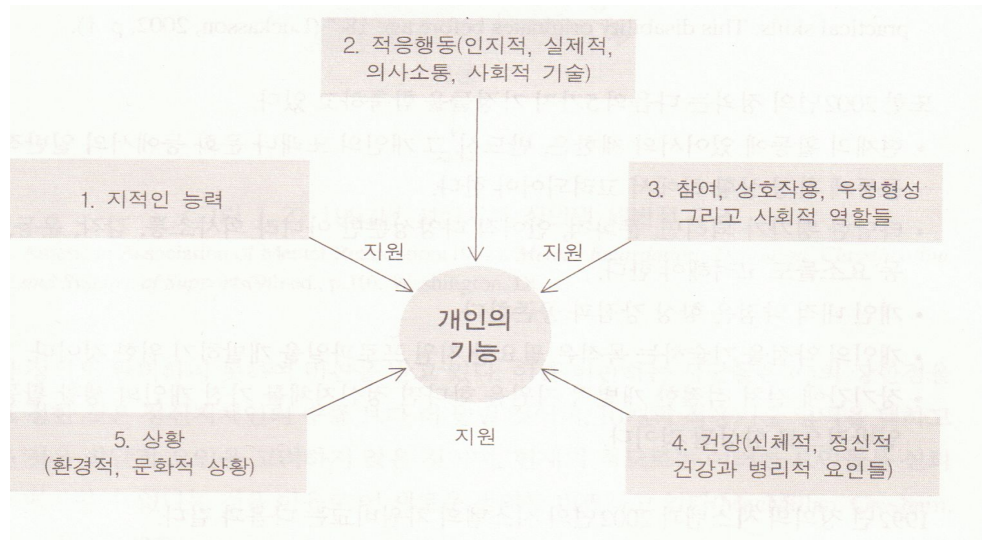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정신지체의 용어를 정리해 보면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를 정의한 것으로 인간병리이론을 생태학적 이론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난 이론 모델은 개인의 활동, 지원 그리고 정신지체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방식을 포함하는 5가지 차원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sup>5)</sup>

---

5)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2002). Mental Retardati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10th ed). Washington, DC:Author.

<그림 1 > 정신지체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



<그림 1>은 정신지체의 상태와 개인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핵심 요소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기능에 대한 다차원적 영향은 각 개인에게 유용한 지원이라는 중재 과정을 거쳐 제공된다. 또한, <그림1>은 개별화된 적절한 지원이 장기간 주어지면, 정신지체인의 생활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도식화한 것이다.

#### 나. 정신지체의 원인

정신지체가 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생물학적 원인과 사회심리적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의 10~20% 정도 만이 원인규명이 가능하다.

주로 중도 정신지체에서 생물학적인 원인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도 정

신지체는 사회심리적 원인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은 주로 단일 원인인 경우가 많고 병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 요인에 의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며 악화를 방지 할 수 있고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신지체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 심리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 1) 생물학적 요인

(1) 감염과 중독: 임산부가 홍역, 풍진, 매독 등에 감염되면 태아가 정신지체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는 유아나 어린 아동이 뇌막염이나 뇌염에 감염되면 정신적인 발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독은 임산부의 음주로 인한 알콜섭취, 지나친 카페인섭취,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으로 인해 미숙아 발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출산 후의 뇌상: 출산 후에 입은 어떤 유형의 뇌 상해가 정신지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중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서 어린이 학대가 있다.

(3) 유전된 신진대사상의 질병: 때로는 어떤 물질에 대한 신진대사 능력을 몸에 가지고 태어난 아동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정신지체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아미노산에 대한 신진대사 이상이다. 이 병은 출생 시에 발견되면 특별한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4) 지방질 신진대사 질병: 지방 신진대사 이상에서 야기되는 보기 드문

질병이 많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흑내장성 가족성 치매병이 있다. 이것은 언제나 중증 정신 지체와 초기 사망을 가져온다.

(5) 염색체 이상: 가장 보편적 염색체 장애는 다운중후군으로서 삼색염색체증, 21번째의 염색체가 다른 염색체에 붙어 생기는 전위, 모자이크증 등의 세 유형이 있다. 이것은 임신부의 산전검사에서 양수 일부를 빼내어 그 속의 세포를 분석함으로써 염색체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는 양막천자의 기술로써 조기의 진단이 가능하다.

(6) 갑상선 기능 감퇴증: 갑상선 기능 감퇴증은 이전에는 크레틴병이라고 불렸던 것으로서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이 병은 출생 시에 흔히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치료하지 않으면 지능 저하를 초래하지만 갑상선 투약법으로 치료하면 문제가 없다.

(7) 두개골 기형: 원인 불명으로 두개골이나 척추가 기형인 선천적 질병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정신 지체를 일으킬 수 있다. 즉 격세 유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주종은 뇌척수의 배수 불능에서 기인한 병으로서 두개골과 뇌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진다. 이병은 때로는 수술로서 치료할 수 있다. 뇌수종은 이분척수가 수반되는데 이것은 척수가 벌어지는 상태에서 하부 수족마비를 일으킨다. 또 다른 두개골 비정상으로서 이상 소두증이 있는데 이것은 머리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 2) 사회 심리학적 요인

정신지체의 원인과 환경과의 연관성은 유전과 양육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유전의 입장은 지능은 생득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유전에 의한 영향을 주로 받게 되며, 따라서 환경이 아닌 유전적인 변인에 의

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지능에 대한 생득적 입장의 학자들은 지능의 약 80%가 유전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신지체의 원인에 대한 환경적 입장에서는 지적 수준의 결정 인자가 경험이라고 말한 John Rock의 영향을 받았다. Rock는 ‘인간은 백지 위에 기록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공리주의자인 Watson과 행동분석 이론의 대가인 Bijou의 행동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6)

미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중등학교에 다니는 연령의 장애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종합해 보았을 때 사회 경제적 수준과 편부모 가정과의 장애발생 관련성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요인들이 아동의 교육적 수행, 신체 및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론자들은 집안에서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 가정의 경제적인 위치, 거주지 문화의 정도,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 장애 등의 요인이 아동에게 결핍환경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은 단일요소로 작용하기 보다는 다른 부분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복잡하게 영향을 끼치며 특히 중도 정신지체의 경우 많은 유전적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다. 정신지체 장애 정도에 따른 특성

정신지체는 장애 정도에 따라 경도, 중도, 중등도, 최중도로 분류된다.

### 1) 경도 정신지체아의 특성

---

6) 백은희 『정신지체 -이해와 교육-』 (교육과학사) p.68

경증 정신지체는 지능지수 50 혹은 55에서 70사이로, 적응행동의 결함을 보이는 경우로 교육가능 정신지체, 훈련 가능 정신지체, 또는 경한 형태의 정신지체로 분류되기도 한다.<sup>7)</sup>

경증정신지체는 신체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우며, 약 만 6.5세가 평균 발달연령으로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어와 행동은 조음 장애, 주의산만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학습의 되풀이되는 실패로 인해 또래 그룹에 있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적인 혹은 행동적인 문제를 보일 수 있다. 기질적인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출산 전의 원인으로 미성숙, 과소 체중, 감염 등의 원인과 의료 상태의 열악, 영양상의 문제, 열악한 주거의 문제 등도 경도의 정신지체를 유발할 수 있다.

교육가능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학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증 정신지체 아동들이 부분적으로는 특수반에서, 부분적으로는 정규반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학습의 잇점을 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붙여진 용어이다. 또한 이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주로 취업과 경제적 독립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 대부분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과정은 생활과 일치하는 기능적인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기본 학업 기술과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자조 기술, 사회적 기술, 직업 기술의 교수가 필요하다.

## 2) 중등도 정신지체아의 특성

중등도 정신지체아는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추상적 사고를 요하는

---

7) 백은희, 『정신지체 -이해와 교육-』 (교육과학사,2005) p.71

일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리고 새로운 상황과 일반적인 학습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대체로 10세가 될 때까지 학습활동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중등도 정신지체아들은 또한 매우 뚜렷한 적응 행동의 결함을 갖는다. 그들은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사회적 개념, 정서적 불안정,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 등을 가진다.

중등도 정신지체아들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그들의 지체가 점점 명백해지는 경향으로 그들의 발달적 지체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 이것은 경도 정신지체아가 성인이 되면 상태가 점점 지체의 폭이 좁아지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 3) 중도 정신지체의 특성

일반적으로 전문가들과 의사들은 중도 정신지체아와 최중도 정신지체아를 같은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사실 중도 정신지체아와 최중도 정신지체아들은 그들의 지체의 범주가 겹쳐지기는 하지만 각각 몇 가지 방면에서 서로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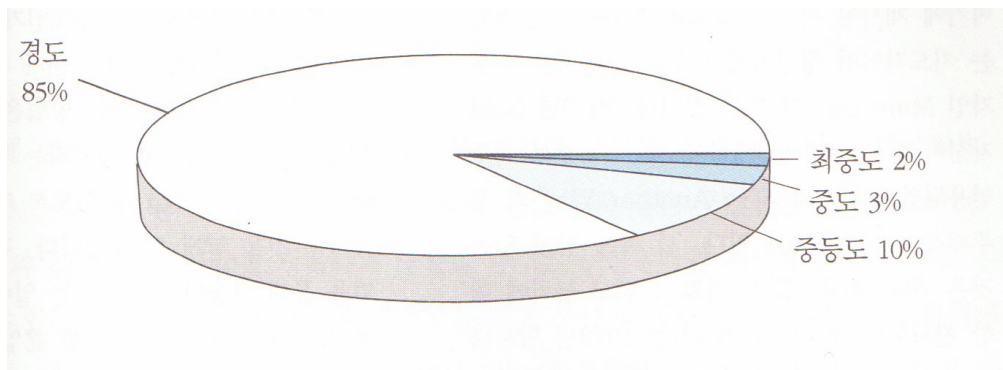
중도 정신지체아들은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들은 가정, 학교, 사회가 바라는 지적 그리고 적응행동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적·기술적 조치가 제공되어야만 한다. 중도 정신지체아는 고유한 정신지체 이외에 추가적인 장애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중도 정신지체 아동은 언어의 결핍 문제, 사회적 기능의 부적응, 운동발달 결핍, 이동의 부자유, 감각 손상, 발작 그리고 뇌성마비 등 추가적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정신병적 질환은 보통 사람들보다 약 4배 이상 발병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부적응 행동은 중도 정신지체와 최중도 정신지체아들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중도 정신지체아는 기초적인 기능들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 습관 조절, 식사하기, 표적에 공던지기, 단순한 언어적 지시 이해, 간단한 놀이와 게임 등에 참가하기 등을 배울 수 있었다.

#### 4) 최중도 정신지체아의 특성

최중도 정신지체아들은 대부분 심하게 손상을 입은 장애인으로 그들의 장애 특징과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과 치료의 다양한 형식들 없이는 사실상 적응행동을 나타낼 수 없다.<sup>8)</sup>

<그림 2 >정신지체인의 구성비율<sup>9)</sup>



<그림 2>는 정신지체인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정신지체인 중에서 10%가 중등도 정신지체인이고 3%가 중도 정신지체인인 반면, 최중도

8) 이소형외, 『특수아동교육』, ( 학지사 ) p.126-127

9) 신중호외, 『정신지체』, (시그마프레스) p.351

정신지체인은 2%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중도 정신지체는 대개의 경우 경도 정신지체보다 발달 과정 초기에 인식 될 수 있다. 좀 더 심한 발달 지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의학적 상태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경도 정신지체와는 달리 중도 정신지체의 경우 환경적 결손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 비록 조산과 같은 요인이 열악한 환경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중도 정신지체인의 출현율은 모든 사회 경제적 계층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 3. 피아제의 인지발달론

Jean Piaget의 인지 발달론은 아동 발달 이론과 교육의 실천적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피아제는 어린이의 인지과정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 단계는 그 순서가 일정하다. 피아제가 구성한 인지발달 단계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로 이루어진다.<sup>10)</sup>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다.

#### 1) 1단계- 감각 운동기

감각운동기(sensorimotor stage)는 출생 후부터 2세까지 시기다. 이 시기는 영아가 자신의 감각과 운동을 조합함으로써 세상의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므로 감각운동기라 한다. 이 감각운동기의 초기에는 생득적인 반사활동으로 행동하나, 마침내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 시기는 상징적 사고와 언어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

---

10) 황희숙외, 『아동발달과 교육』, 학지사 p.112-122

하기 위하여 신체적 감각 및 운동발달에 의지하여야 한다. 신생아는 자기의 신체, 감각관계 및 주위의 물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쫓빨기 반사, 파악 반사 등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적응한다.

## 2) 2단계- 전조작기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는 2세부터 6, 7세경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이시기를 전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 개념적 조작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작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내면화시켜 서로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감각운동기와 비교할 때 감각운동적 행위에 덜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언어의 습득과 함께 사물이나 사건을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표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능력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의 유아들은 눈에 보이는 지각적 속성에 의해서만 표상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아직 유아들의 사고체계는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이다.

## 3) 3단계- 구체적 조작기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는 7~12세경으로 이 단계에서 아동은 사고를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다. 이 시기의 조작적 사고는 관찰이 가능한 구체적 사건이나 사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추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복잡한 가설의 정신적 사고는 아직 가능하

지는 않다.

이 시기가 끝날 때쯤 되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범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거의 불편이 없을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된다. 이 단계 어린이들의 사고는 현실에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제 사실에만 한정된 것이 특징이다.

#### 4) 4단계- 형식적 조작기

어린이의 인지구조가 질적 변화를 하는 마지막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stage)다. 형식적 조작기에는 앞 단계에서 제시된 모든 지적 능력을 포함하면서 구체적 사물에 대한 의존 없이도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전제로 결론을 도출하는 명제적 사고와 각 변인을 상호 통합하는 결합적 분석 및 형식논리에 의해 사고를 전개하는 추상적 추론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 조작사고가 일차적 관계 사고라면, 형식적 조작사고는 이차적 관계 사고다. 따라서 이들 조작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12세 이후의 아동들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형식적 조작기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현재의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경험을 이용하고 체계적인 과학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4. 질적연구

질적 연구는 대상의 질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이다.

질적 연구에서 처리되는 자료는 무형 자료라고 하는데 대상의 양적 측면에 주목하는 양적 연구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인터뷰, 관찰 결과, 문서, 그림, 역사 기록 등 질적 자료를 얻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좁은 의미의 조사뿐만 아니라, 실험, 관찰, 면접 시험, 문서와 그림의 내용 분석, 대화 분석, 참여 관찰, 각종 현장 작업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조사 방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사회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관찰 행위도 포함된다.

관찰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대상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회학은 대부분의 경우 대상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된다. 현재는 표준적인 분석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분석은 직관과 개인적인 느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 기법은 대규모 사회의 전체 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되기 어렵다. 전문가 또는 특정한 사람, 전형적인 사례에 대해 인터뷰와 관찰을 하는 등, 선행 연구가 적은 분야의 연구를 위해 탐색적인 예비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조사 대상의 인물과 역사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기록을 남길 목적의 연구로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표준적인 분석 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거대한 사회의 극히 일부 밖에 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방법은 주의가 요구된다.

### Ⅲ. 음악수업관찰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정신지체 특수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음악수업에 가창과 리듬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문헌연구와 참여관찰연구로 정신지체중학생의 음악수업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신지체학생들에게는 음악이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일상생활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해소에도 일조를 한다. 또한 본능적으로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소리를 만들어 내는 음악은 정신지체학생들에게 거의 본질적이다.

이처럼 정신지체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음악은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하면 특수학교에서 집단으로 교사가 미리 계획하여 실행하는 음악교육 활동외에도 하루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비롯하여 교사가 미리 계획하지 않은 가운데 즉흥적으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음악시간을 통하여 정신지체학생들이 어떻게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또한 정신지체중학생의 음악교육의 양상과 교사의 교수방법이라는 큰 의문점만을 가지고 연구지로 들어가서 그 환경 속에서 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심층면담, 문서수집의 세 종류의 자료 수집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연구지에 들어가 자기가 듣고 관찰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중학생의 인지상태와 음악수업관찰을 통해 음악

반응을 알아보고, 음악수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창 반응검사표와 리듬 반응 검사표는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석문주 외)에서 가창활동의 성취기준과 세부수행과제와 창작활동의 성취기준과 세부수행과제를 참고로 하였다. 또한 정인지체장애학생의 인지단계에 맞게 수정·보완한 항목들이다.

##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성남소재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 중 경도, 중도에 해당하는 정인지체학생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주의력 결핍 및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었으며,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구체적인 관찰학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A는 경도 정인지체학생으로 극도로 짧은 주의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이 소극적이며 고집이 세고 집단활동의 참여도가 낮았다. 특히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고, 적극적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만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의 부모님은 모시립국악관현악단의 단원이고 가정환경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학생은 타 과목에 비해 음악시간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이 학생은 일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타학생의 비해 수업수행능력이 심하게 부족하다는 교사의 판단아래 특수학교로 오게 되었다.

관찰한 6명의 학생중 가장 인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내성적인 성

격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이유로 이 학생에게 내재되어 있는 학습의 가능성을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이 학생의 지능지수는 70이다.

2) 학생B는 경도 정신지체학생으로 교우들과 잘 어울리고 교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등교시 교실창문에 매달려서 한참동안을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생은 스스로 사물함에 가방과 실내화 정리를 잘하는 꼼꼼한 성격이었고 국어와 수학시간에도 다른 학생들의 비해 주의집중력이 좋아서 반친구들 중에서는 학습효과가 비교적 좋은 학생이었다. 특히 방과후 특활수업인 난타를 좋아하였고 음악수업시간에는 리듬악기와 핸드벨연주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다른 친구들이 넘어지거나 흥분을 하면 등을 다독거리거나 안아주는 등 친구들과의 애착관계가 특별하였다. 다른 관찰학생에 비해 교사의 말을 잘 따랐다.

이 학생의 지능지수는 65이다.

3) 학생C는 중등도 정신지체학생으로 행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말을 잘 하지 않으나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에게는 무조건 끌어안고 좋아하는 행동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물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집중력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어서 교육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학생이었다. 또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의 머리를 쥐어 뜯거나 손목을 입으로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서 손목의 살이 두껍게 올라와 있었다.

음악시간을 포함한 모든 시간에 자기 맘대로 뛰어다니고 소리지르고 가

끔 교사의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등 생활행동이 난폭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포켓몬스터노래를 좋아해서 이 학생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려면 수업도입부에 포켓몬스터노래를 틀어주면 행동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학생의 지능지수는 43이다.

4) 학생D는 중등도 정신지체학생으로 의지력이 매우 약하여서 사물함에 가방과 실내화정리도 교사의 도움없이 하려고 들지 않았고 모든 수업 시간에는 책상에 누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학생은 중복장애학생으로 다리한쪽에 교정틀을 하고 다녔고 늘 보조교사가 따라다니면서 모든 생활지도를 도와 주었다. 체구는 매우 말랐고 생활하는 데 힘이 많이 부족해 보였으며 학교생활의 모든 수업과 활동에 무기력한 것이 특징이다. 교우와도 말이 거의 없었고 생활전반에 호기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학생은 행동이 전반적으로 의존적이어서 등교 버스에서부터 안고 내려오고 부축하여 교실로 갈 수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교사가 일일이 앞치마를 입히고 학생식당까지 데려다 주어야만 점심식사가 가능하였다.

이 학생의 지능지수는 35이다.

5) 학생E는 중등도 정신지체학생으로 교실내에서 괴성을 잘지르고 주의력이 상당히 결핍되어 있었고 자리가탈이 빈번히 일어났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우나 교사를 아무대나 물어뜯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버릇이 있으며 음악수업시간에도 책을 보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면 혼자 일어나서 괴성을 지르는 등 학습 분위기를 흐트렸다.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항상 혼자 행동하였다.

이 학생이 음악시간에 관심을 갖는 것은 가창보다는 핸드벨이나 북 또

는 탬버린과 캐스터네츠와 같은 리듬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또한 체육시간에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것을 좋아했고 동작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도를 보여서 체육시간이면 항상 체육교사와 함께 단에 올라가 에어로빅을 같이 진행하였다.

이 학생의 지능지수는 42이다.

6) 학생F는 중등도 정인지체학생으로 행동이 위축되어 있고 말을 잘 하지 않으나 집단 활동에는 잘 참여하는 편이며 음악에는 관심이 많다. 성남소재 특수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노래연습실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노래연습실에서의 활동에는 적극적이었고 노래부를 때 음정과 박자도 정확하게 불렀다. 이 학생은 소심하고 꼼꼼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이든 교사의 주목을 받고 싶어 했고 약간의 칭찬에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사소한 일이라도 교사에게 이르는 것이 특징이다.

감상활동시간에는 화면과 소리에 집중을 잘했으며 호기심이 많아 악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율동을 따라하는 등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력은 높은 편이다. 이 학생의 담임 교사의 말에 의하면 이 학생은 타과목에 비해 음악시간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 학생의 지능지수는 45이다.

<표 1> 관찰 학생들의 특징

	장애 정도	지능 지수	생활적 특성	음악적 특성
학생 A	경도	70	주의력 결핍 고집세고 집단활동의 참여도 낮음	가창, 기악 활동을 모두 좋아하고 관찰학생 중 가장 인지가 높음
학생 B	경도	65	꼼꼼하고 적극적인 성격임 주의집중력이 높음	난타연주를 좋아하고 가창보다는 리듬악기에 관심을 많이 보임
학생 C	중등도	37	행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모든 활동에 참여도가 낮음	만화음악에 관심이 많고 특히 포켓몬스터노래를 좋아함
학생 D	중등도	35	의지력이 매우 약하여 생활전반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함	음악에 관심이 없고 수업시간에 그냥 책상에 누워 있음
학생 E	중등도	42	자리어탈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괴성을 잘지름	가창보다는 리듬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함
학생 F	중등도	45	내성적인 성격이며 교사의 주목을 받기 위해 많이 노력함	가창과 리듬악기 모두 잘하며 음정과 박자가 정확함

### 3. 연구절차

<표 2>는 정신지체중학생을 대상으로 참여 관찰한 가창반응 5회와 리듬반응 5회에 관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절차

차시	일시	관찰 영역	제재곡	활동내용
1차시	2010년 10월5일	가창	새싹들 이다	제재곡의 중심코드를 핸드벨로 연주하였다.
2차시	2010년10월7일	리듬	개구리	큰북과 작은 북으로 제재곡의 리듬을 강박과 약박에 연주하였다.
3차시	2010년10월12일	리듬	오! 필승 코리아	이곡을 통해 2002년 월드컵당시 유행하던 리듬을 캐스터네츠로 공부하였다.
4차시	2010년10월14일	가창	고기 잡이	이 곡의 8분 쉼표에 대해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지 관찰하였다.
5차시	2010년10월19일	리듬	어린이 왈츠	제재곡박자인 3/4박자에 맞추어 손뼉치기를 해보았다.
6차시	2010년10월21일	가창	숲속을 걸어요	소리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가에 중점을 두고 관찰하였다.
7차시	2010년10월26일	리듬	노래하자 춤추자	이곡으로 리듬에 맞추어 율동을 시켜보았다.
8차시	2010년10월28일	가창	돌과 물	제재곡 중간에 재미있는 소리를 넣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였다.
9차시	2010년11월2일	가창	초록 바다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학습하였다.
10차시	2010년11월4일	리듬	우리산 우리강	징과 팽과리로 노래를 부르며 리듬 연주를 시켜보았다.

#### 4. 참여 관찰

질적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하여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가능한 대로 그들의 행동에 함께 참여한다. 참여관찰을 수행하는 동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편입되어 관찰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찰된 장면, 그 장면에서 일어난 활동들, 그들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의 정신지체중학생의 음악수업관찰기록은 다음과 같다.

##### 가) 1차 음악수업 참여 관찰

수업제재곡은 ‘새싹들이다’ (특수학교 음악교과서 2권 p.40)이며, 수업에 쓰인 악기들은 신디사이저, 핸드벨이다. 수업 도입부에는 신디사이저로 ‘새싹들이다’의 음악을 화성적인 반주와 함께 들려준 후 각 학생별로 노래를 불러 보게 하였고, 그다음은 주선율로 연주하여서 각 학생별로 노래를 시켜보았다. 그리고 핸드벨을 나누어 준 후 ‘새싹들이다’의 각 마디의 변화하는 코드를 한 명씩 노래를 부르며, 핸드벨로 중심코드를 치도록 하였다. 핸드벨을 칠 때는 교사가 손동작으로 지시하여 학생이 칠 때를 알려주었고, 교사는 학생이 노래를 부르며 핸드벨을 칠 수 있는 지를 관찰하였다.

##### <악보1 >새싹들이다

보통 빠르게

새싹들이다

최승원 작사  
최승원 작곡

1. 마음을 열 어 하늘을 보 라 넓 고 높 고 푸 른 학 날  
2. 가 슴 을 펴 고 소 리 처 보 자 우 리 들 은 새 싹 들 이 다  
푸 른 풀 이 자 람 닮 았 다 - 활 락 고 고 운 활 자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작은 소리이기는 하나 노래를 잘 따라 불렀으며 핸드벨 중 파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박에 맞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핸드벨을 잘 연주했다. 이 학생은 관찰대상 학생 중 가장 인지가 발달했으나 워낙 소심한 성격 때문에 교육효과를 알아내는 데는 많은 관찰이 필요했다. 그 이유는 노래를 잘 불러도 소리가 작아 노래를 정확히 부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핸드벨을 정확한 박자에 연주하여도 몸동작이 워낙 작아서 몇 번의 관찰 끝에 이 학생이 노래와 핸드벨연주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학생B는 화성반주로 노래를 불렀을 때는 노래를 전혀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 연주할 때는 잘 따라 불렀고, 핸드벨 중 도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박에 맞게 노래를 부르면서 핸드벨을 잘 연주하였다.

3) 학생C는 음악수업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손등을 마구 무는 등 자해를 했고 특수교사가 진정시켜야만 흥분을 가라 앉혔다. 이 학생은 중등도 장애학생이고,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물에 대한 인지는 있었으나 심한 주의력 결핍으로 다른 과목도 교육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4) 학생D는 모든 활동에 의지력이 약한 학생으로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었으며, 핸드벨 중 솔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손에 들고만 있고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였다.

5) 학생E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할 때나 선율반주로 연주할 때에도 노래를 전혀 부르지 못했으며 핸드벨 중 높은 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때나 흔드는 등 수업시간에 집중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6) 학생F는 노래부를 때 화성반주에서는 어려워하였으나 주선율로 연주하며 노래할 때는 노래를 완벽히 따라불렀고, 박자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핸드벨은 과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박에 정확히 표현하였다.

<표 3> 가창반응 검사표 (가창 1회)

곡 목 번 호	새 짝들이다	날 짜	2010년 10월5일						반응 인원
			관찰대상						
반응 행동			A	B	C	D	E	F	
1	높 낮이가 있는 목소리를 낸다.		O	O	O	X	X	O	4
2	노래 부르며 박수를 친다.		X	X	O	X	X	X	1
3	노래 부르며 율동을 부분적으로 한다.		X	X	X	X	X	X	0
4	특정부분에서 소리내어 웃는다.		X	X	X	X	X	X	0
5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는 못하나 부분 부분을 정확히 부른다.		X	O	O	X	X	X	2
6	화성반주일 때 노래를 잘 따라 부른다.		X	X	X	X	X	X	0
7	노래의 주선율을 연주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		O	O	O	X	X	O	4
8	가사가 비교적 정확하다.		O	X	X	X	X	X	1
9	음정이 비교적 정확하다.		X	O	O	X	X	X	2

나) 2차 음악수업 참여 관찰

수업제재곡은 ‘개구리’(특수학교 음악교과서 2권 p.64)이고, 수업에 쓰인 악기는 신디사이저와 리듬악기인 북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도입부에는 신디사이저로 ‘개구리’의 음악을 화성적인 반주와 함께 들려준 후 다 함께 노래를 부른 후 리듬악기인 큰북과 작은북에 대해 설명한다. 두 명씩 짝을 지어 한 명은 큰북을 한 명은 작은북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연주하도록 하였다. 이 제재곡은 4/2박자의 곡으로써 강박에는 큰북을 치고, 약박에는 작은북을 치도록 하였다.

<악보 2> 개구리

**개구리**

이동찬 작사  
홍난파 작곡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한 다 아들손자 며느리  
다-모여 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이없 네  
듣는사람 없어도 날이밤도 록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한 다 개굴개굴 개 구 리 목청도 좋 다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작은 소리가기는 하나 노래를 잘 따라 불렀으며 화성반주일 때보다 주선율을 연주해 줄 때 노래를 더 잘 따라 불렀다. 이 학생은 큰북을 연주했는데 노래의 강박에 정확히 북을 연주했다. 이 학생은 연주대상 학생 중 가장 인지가 발달했으나 워낙 소심한 성격 때문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교육효과를 알아내는 데는 많은 관찰이 필요했다. 그 이유는 노래를 잘 불러도 소리가 작아 노래를 정확히 부르고 있는 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큰북을 정확한 박자에 연주하여도 몸동작이 워낙 작아 몇 번의 관찰 끝에 이 학생이 노래와 큰북연주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학생B는 화성반주로 노래를 불렀을 때는 노래를 전혀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 연주할 때는 잘 따라 불렀고 학생 A와 짝을 맞추어 작은북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연주했다. 이 학생은 적극적인 성격으로 작은북을 약박임에도 크게 연주했고, 정박에 정확히 나옴으로써 박자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한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연주했을 때보다는 주선율로 연주하였을 때는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학생C는 원래 음악수업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손등을 마구 무는 등 자해하는 학생이다. 이 학생은 인지는 발달되어 있으나 자신의 관심사외에는 수업시간에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수업시간에 평소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이 학생은 이날 큰북을 가지고 있었고, 노래와 함께 큰북을 강박에 연주하는 것을

잘 수행하였다. 그러나 노래소리는 아름답게 표현하지는 못했으며, 화성 반주보다는 주선율로 연주해줄 때 박자에 맞추어 큰북을 잘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학생D는 모든 활동에 의지력이 약한 학생으로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려 있었으며, 작은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자에도 잘 맞추어 연주하지 못했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

5) 학생E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할 때나 주선율반주로 연주할 때에도 노래를 전혀 부르지 못하였다. 또한 큰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래는 잘 부르지 못했으나 박자에는 비교적 정박에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학생F는 노래부를 때 화성반주에서는 어려워하였으나 주선율로 연주하며 노래할 때는 노래를 완벽히 따라 불렀고 작은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박에 정확히 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 리듬반응 검사표 (리듬 1회)

번호	반응행동	2010년 10월7일							반응 인원
		A	B	C	D	E	F		
1	리듬악기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O	O	O	X	O	O	5	
2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O	O	O	O	O	O	6	
3	악기 소리를 약하게 낸다.	O	X	X	O	O	O	4	
4	악기 소리를 명료하게 낸다.	O	O	O	X	O	O	5	
5	악기를 정확한 박자로 연주할 수 있다.	O	O	X	X	O	O	4	
6	리듬패턴에 맞추어 연주하나 박자가 자주 틀린다.	X	X	O	O	O	X	3	
7	연주법에 맞추어 악기연주를 할 수 있다.	O	O	O	X	O	X	4	
8	악기소리와 연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X	X	X	O	X	X	1	
9	박자, 리듬패턴, 연주법에 맞추어 연주를 한다.	O	O	O	X	O	O	5	

다) 3차 음악수업 참여 관찰

수업제재곡은 ‘오 ! 필승 코리아’(특수학교 음악교과서 2권 p.110)이고, 수업에 쓰이는 악기는 신디사이저, 캐스터네츠였다. 수업 도입부에는 신디사이저로 ‘오 ! 필승코리아’를 화성적인 반주와 함께 들려준 후 다 함께 노래를 부른 후 리듬악기인 캐스터네츠에 대해 설명한다. 이 제재곡은 2002년 월드컵에 유행했던 노래로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노래가 끝난 후에는 캐스터네츠로 월드컵 당시 유행하던 리듬을 연습시킨 후 노래를 마친 후 연습시킨 리듬을 캐스터네츠로 한명씩 연주해 보도록 하였다.

<악보 3>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이근상 작사  
작 곡 미상

C F G7 C  
오 필승 코리아 - 오 필승 코리아 -

C F C G7 C  
오 필승 코리아 - 오 오 레 오 레

<그림 3> 연습시킨 리듬패턴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소심한 성격이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에 비해 인지가 가장 발달한 학생이지만 소심한 성격으로 음정과 리듬을 정확히 표현하더라도 소리가 작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다. 월드컵 당시 유행하던 리듬패턴을 정확히 캐스터네츠로 연주했고, 노래도 음정과 박자가 비교적 정확했다.

2) 학생B는 학생 A와는 정반대 성격으로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디사이저에 맞춰 노래를 배울 때는 관심이 적었으나 관련 동영상인 월드컵 응원하는 모습과 가수가 부르는 제재곡을 듣고는 매우 흥분하면서 관심을 표실했다. 또한 노래를 부른 후 마지막 부분에 제시한 리듬패턴을 캐스터네츠로 치는 것도 훌륭히 잘 수행하였다.

3) 학생C는 원래 음악수업시간 내내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손등을 마구 무는 등 자해하는 학생이다. 이 학생은 노래를 신디사이저에 맞춰 부를 때는 음정이 전혀 맞지 않고 마구 피성을 질렀다. 그러나 월드컵 관련 동영상과 가수가 부르는 제재곡을 듣고는 관심을 보였고, 제재곡을 다시 주선율로 연주해서 노래를 시켰을 때는 정확한 음정을 구사했다. 또한 노래를 마친 후에 제시한 리듬패턴도 캐스터네츠로 잘 연주했다.

4) 학생D는 모든 활동에 의지력이 약한 학생으로서 모든 수업시간에 엎드려서 있는 것이 행동의 특징이다. 이 학생의 별명은 노할아버지로 그 이유는 성이 노씨이기 때문이다. 이날도 누워서 활동에 참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월드컵 관련 동영상을 보여주었을 때만 잠깐 일어나서 보았을 정도이다.

5) 학생E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할 때나 선율반주로 연주할 때에도 노래를 전혀 부르지 못했으며 다만 제재곡을 마친 후에 제시된 리듬패턴은 잘 연주했다.

6) 학생F는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했을 때는 어려워했으나 주선율로만 연주했을 때는 음정과 박자를 잘 표현하였다. 노래가 마치고 제시된 리듬패턴을 시켰을 때는 잘 수행하지 못하여 여러번 손뼉으로 연습시킨 후에 케스터네츠로 시켜보니 제시된 리듬패턴을 잘 연주하였다.

<사진 1>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표 5> 리듬반응 검사표 (리듬 2회)

번호	반응행동	2010년 10월12일							반응 인원
		A	B	C	D	E	F		
1	악기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O	O	O	X	O	O	5	
2	도움을 받아서 리듬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O	O	O	O	O	O	6	
3	악기 소리를 약하게 낸다.	O	X	X	O	O	O	4	
4	악기 소리를 명료하게 낸다.	O	O	O	X	O	O	5	
5	악기를 정확한 박자로 연주할 수 있다.	O	O	O	X	O	O	5	
6	리듬패턴에 맞추어 연주하나 박자가 자주 틀린다.	X	X	O	O	O	O	4	
7	연주법에 맞추어 악기연주를 할 수 있다.	O	O	O	X	O	O	5	
8	리듬악기소리와 연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X	X	X	O	X	X	1	
9	박자, 리듬패턴, 연주법에 맞추어 연주를 한다.	O	O	O	X	O	O	5	

라) 4차 음악수업 참여 관찰

수업 제재곡은 ‘고기잡이’ (특수학교 음악교과서 2권 p.92)이며, 수업에 쓰인 악기는 신디사이저이다. 제재곡을 화성적인 반주와 함께 들려준 후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교사가 신디사이저로 주선율로 연주해서 학생A 부터 학생F까지 한명씩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교사는 8분 쉽표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8분쉽표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가를 관찰하였다.

<악보 4> 고기잡이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song '고기잡이' (Fishing). It is written in G major and 2/4 time. The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with lyrics underneath. The lyrics are: '1.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나 2. 좌 좌 좌 쉬 쉬 쉬 고기를 몰아서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나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차 먼 은 이 병에 가득히 넣어 지고 요 선생님 한테로 가지고 온 다 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온 다 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안 - 녘'. The chords G, D, C, and D are indicated above the notes.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관찰학생 중 인지는 가장 발달하였으나 성격이 소심하여 노래를 정확히 부르면서도 크게 부르지는 않았다. 제재곡을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할 때는 잘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 연주할 때는 선율과 가사가 정확히 표현되었고, 중간에 나오는 8분 쉼표도 정확히 쉬었다.

2) 학생B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하였을 때는 잘 따라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 연주할 때는 잘 따라 불렀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제재곡에 나오는 8분 쉼표도 정확히 표현하였다.

3) 학생C는 인지발달상태가 관찰학생 중 중간 정도되는 학생으로 스스로 흥분만 하지 않는다면 학습효과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력 결핍으로 화성반주이었을 때도 주선율반주이었을 때도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으며, 제재곡에 나오는 8분 쉼표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괴성을 질렀다.

4) 학생D는 항상 의지력이 낮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수업시간에도 시작과 함께 책상에 엎드려 있었으며 수업에 참여할 기운조차 없어보였다. 전날 감기로 인해 학교를 결석했고,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 보였다. 이 학생은 음악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다.

5) 학생E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할 때나 주선율로 반주할 때도 노래

를 전혀 부르지 못했다. 또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제재곡에 나와 있는 8분 쉽표에 대해서도 표현하지 못하였다.

6) 학생 F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할 때는 잘 따라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 천천히 반주해 주었을 때는 제재곡을 정확히 불렀다. 또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제재곡에 나와 있는 8분 쉽표에 대해서도 정확히 표현하였다.

<표 6> 가창반응 검사표 (가창 2회)

번호	고기잡이 반응행동	날 짜	2010년 10월14일						반응 인원
			관찰대상						
			A	B	C	D	E	F	
1	높 낮이가 있는 목소리를 낸다.		O	O	X	X	X	O	3
2	노래 부르며 박수를 친다.		X	X	O	X	X	X	1
3	노래 부르며 울동을 부분적으로 한다.		X	X	X	X	X	X	0
4	특정부분에서 소리내어 웃는다.		X	X	X	X	X	X	0
5	전체적으로 부정확하나 곡의 특징적인 부분은 정확히 부른다.		X	O	O	X	X	X	2
6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는 못하나 부분 부분을 정확히 부른다.		X	O	O	X	X	X	2
7	화성반주일 때 노래를 잘 따라 부른다.		X	X	X	X	X	X	0
8	노래의 주선율을 연주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		O	O	O	X	X	O	4
9	가사가 비교적 정확하다.		O	X	X	X	X	X	1
10	음정이 비교적 정확하다.		X	O	O	X	X	X	2

마) 5차 음악수업 참여 관찰

수업 제재곡은 '어린이 왈츠'(특수학교 음악 교과서 2권 P.84)이며, 수업에 쓰인 악기는 신디사이저이다. 교사가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연주한 후 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왈츠의 리듬인 3/4박자를 강약약에 맞추어 신체 리듬치기를 해보았다. 강박은 두 손으로 허벅지를 세게 치고 약박은 손뼉으로 약하게 리듬치기를 시켜보았다.

<악보 5> 어린이 왈츠

어린이 왈츠  
원치호 작사  
권길상 작곡

C F  
꽃 과 같이 곱 - 게 나 비 같이 춤 추 며

C G7  
아 름답 게 크 는 우 리 -

C F  
무 령무 령 자 라 서 이 동 산을 꾸 미 면

C G7 C  
웃 음 의 꽃 피 어 나 리 -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화성반주로 노래할 때는 제재곡을 잘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 연주해주었을 때는 잘 불렀다. 또한 신체리듬치기도 몸동작은 작았으나 정확히 표현하였다.

2) 학생B는 화성반주로 노래할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만 연주해주었을 때는 잘 불렀다. 이 학생은 방과 후에 난타를 1년간 수업받은 영향때문인지 신체리듬치기도 정확히 표현하였다.

3) 학생C는 원인은 모르겠으나 다른 음악수업시간보다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임했으며, 화성반주와 주선율반주일 때 모두 노래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신체리듬치기를 할 때도 머리를 쥐어 뜯는 등 자해행동을 해서 교사가 오랜시간 다독거린 다음 진정되었다. 감정이 진정된 후에도 음악수업시간에는 참여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

4) 학생D는 매일 책상에 기대어 수업을 받았으나 이날은 기분이 좋아보였고 힘은 없어보였으나 미약하게 노래를 따라 불렀다. 화성반주일 때와 주선율반주일 때 모두 정확히 부르지는 못했으며, 신체리듬치기도 박자를 자주 놓쳤다.

5) 학생E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했을 때나 주선율로만 연주했을 때나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다. 그러나 신체리듬치기는 비교적 정확한 박자에 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강약약도 정확히 표현하였다.

6) 학생F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했을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만 연주했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신체리듬치기도 정확한 박자에 강약을 잘 살려서 표현하였다.

<표 7> 리듬반응 검사표 (리듬 3회)

번호	어린이 알츠 반응행동	날 짜	2010년 10월19일						반응 인원
			대상학생						
			A	B	C	D	E	F	
1	신체리듬치기를 리듬에 맞게 표현하였다.		O	O	X	X	O	O	4
2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리듬치기를 표현하였다.		O	O	X	X	O	O	4
3	강박은 표현하지만 약박은 표현하지 못한다.		X	X	X	X	X	X	0
4	신체리듬치기를 마구 크게 친다.		X	X	O	X	X	X	1
5	신체리듬치기를 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O	O	X	X	O	O	4
6	정확한 박자로 표현할 수 있다.		O	O	X	X	O	O	4
7	리듬패턴에 맞추어 연주하나 박자가 자주 틀린다.		X	X	X	O	X	X	1
8	연주법에 맞추어 신체표현을 할 수 있다.		O	O	X	X	O	O	4
9	신체리듬치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X	X	O	X	X	X	1

바) 6차 음악 수업 참여 관찰

수업 제재곡은 ‘숲속을 걸어요’(특수학교 음악 교과서 2권 P.36)이며, 수업에 쓰인 악기는 신디사이저이다. 교사가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연주한 후 모두 노래를 부르고, 신디사이저로 한 옥타브를 연주해주고, 소리의 높고 낮음을 구별할 수 있는 가를 관찰하였다.

<악보 6> 숲 속을 걸어요

<악보 7> 소리의 높고 낮음을 구별해보기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했을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으며 주선율로 연주할 때는 잘 불렀다. 또한 교사가 한 옥타브를 천천히 연주한 후 낮은 음으로 도를 치고 높은 음으로 라를 쳤을 때는 잘 알아맞췄으나 낮은 음으로 도를 치고 높은 음으로 레를 쳤을 때는 알아맞추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학생A는 음정차가 클 때는 잘 알아들었으나 음정차가 좁을 때는 잘 알아듣지 못하였다.

2) 학생B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했을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으며 주선율로만 연주할 때는 잘 불렀다. 또한 교사가 음정차를 작게 칠 때는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음정차를 크게 쳤을 때는 알아들었다.

3) 학생C는 교사가 화성반주와 주선율반주로 연주했을 때 모두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다. 또한 위의 학생과 같은 상황으로 교사가 연주하였을 때 음정차가 크거나 작을 때도 음정차를 알아듣지 못했다.

4) 학생D는 교사가 화성반주와 주선율반주로 연주했을 때 모두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다. 또한 교사가 다른 학생과 같은 상황으로 연주해 주는 음정을 크거나 작거나 알아듣지 못했다.

5) 학생E는 교사가 화성반주로 연주했을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만 반주해주었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교사가 다른

학생과 같은 상황으로 연주해 주었을 때 음정차가 클 때는 알아듣고 음정차가 작을 때는 알아듣지 못했다.

6) 학생F는 교사가 화성 반주로 연주했을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고 주선율로만 연주했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음정차가 클 때는 알아듣고 음정차가 작을 때는 알아듣지 못했다.

<표 8> 가창반응 검사표 (가창 3회)

번호	반응행동	2010년 10월21일							반응 인원
		A	B	C	D	E	F		
2	높 낮이가 있는 목소리를 낸다.	O	O	X	X	O	O	4	
3	음정차가 크거나 작아도 모두 알아 듣는다.	X	X	X	X	X	X	0	
4	음정차가 클 때 알아듣는다.	O	O	X	X	O	O	4	
6	전체적으로 부정확하나 곡의 특징적인 부분은 정확히 부른다.	X	O	X	X	X	X	1	
7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는 못하나 부분 부분을 정확히 부른다.	X	O	X	X	X	X	1	
8	화성반주일 때 노래를 잘 따라 부른다.	X	X	X	X	X	X	0	
9	노래의 주선율을 연주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	O	O	X	X	O	O	4	
10	가사가 비교적 정확하다.	O	O	X	X	X	O	3	
11	음정이 비교적 정확하다.	X	O	X	X	X	X	1	

사) 7차 음악 수업 참여 관찰

수업 제재곡은 ‘노래하자 춤추자’(특수학교 음악 교과서 2권 P.80)이며, 수업에 쓰인 악기는 신디사이저이다. 교사가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연주한 후 모두 노래를 부르고, 각자 노래를 부르며 리듬에 맞추어 자유롭게 율동을 시켜보았다.

<악보 8> 노래하자 춤추자

**노래하자 춤추자** 강소천 작사  
이계석 작곡

1. 노래하자 춤추자  
2. 노래하자 춤추자

동글게 동글게 돌면 서서  
동터크게 동터크게 돌면 서서

사방                  사방                  사방                  사방

꽃밭을 돌면서 춤추는 자다  
꽃밭을 돌면서 춤추는 자다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연주하였을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만 연주하였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노래를 부르며 리듬에 맞추어 자유롭게 율동을 시켜보았는데 3/4박자에 맞게 리듬을 타며 손뼉을 치거나 몸을 흔드는 등 율동을 표현하였다.

2) 학생B는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연주하였을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으나 주선율로 연주하였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노래를 부르며 리듬에 맞추어 자유롭게 율동을 시켜보았는데 3/4박자에 맞게 리듬을 타며 머리를 흔들고 몸을 움직이는 등 율동을 표현하였다.

3) 학생C는 제재곡을 화성반주와 주선율로 연주하였을 때나 똑같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으며 노래에 맞춰 자유롭게 율동을 시켜보았는데 박자에 맞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마구 머리를 흔들거나 소리를 질렀다.

4) 학생D는 제재곡을 화성반주일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으나 주선율로만 연주하였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3/4박자에 맞게 발을 구르며 율동을 표현하였다.

5) 학생E는 제재곡을 화성반주일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으나 주선율로만 연주하였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3/4박자에 맞게 몸을 흔들거나 머리를 흔드는 등 율동을 표현하였다. 이 학생은 리듬감이 있는

학생으로 체육시간에도 단에서 교사와 함께 에어로빅을 할 정도로 율동을 좋아한다.

6) 학생F는 제재곡을 화성반주일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으나 주선율로만 연주하였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그러나 리듬에 맞추어 율동을 시켜보았을 때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표 9> 리듬반응검사표 (리듬 4회)

번호	반응행동	2010년 10월26일							반응 인원
		A	B	C	D	E	F		
1	리듬에 맞추어 율동을 할 수 있다.	O	O	X	X	O	X	3	
2	노래는 부르나 율동을 하지 못한다.	X	X	O	X	X	O	2	
3	노래는 정확히 부르나 리듬에 맞추어 율동을 하지 못한다.	X	X	O	X	X	O	2	
4	노래와 율동을 모두 표현하지 못한다.	X	X	O	X	X	X	1	
5	교사의 율동을 모방하여 표현한다.	O	O	X	O	O	X	4	
6	리듬패턴에 맞추어 율동하나 박자가 자주 틀린다.	X	X	O	X	X	O	2	
7	음정과 박자가 모두 정확하다.	O	O	X	X	O	X	3	
8	리듬에 맞게 율동을 하나 신체의 움직임이 매우 작다.	X	X	X	X	X	O	1	

아) 8차 음악 수업 참여 관찰

수업 제재곡은 ‘돌과 물’(특수학교 음악 교과서 2권 P.96)이며, 수업에 쓰인 악기는 신디사이저이다. 교사가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연주한 후 모두 노래를 불러 보았다. 또한 제재곡 중간에 재미있는 소리를 넣어 노래를 불러 보도록 했다.

<악보 9> 돌과 물

**돌과 물** 윤식중 작사  
전석환 작곡

1.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맹이  
2.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돌맹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시냇물 모여서 큰강물 큰강물 모여서 바닷물

랄 라랄 라라 라랄라 라라랄라 라랄라

<그림 4> 제재곡에 재미있는 소리넣어 노래부르기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쿵** 돌덩이 깨뜨려 돌맹이 **쿵**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뚝**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뚝**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화성반주일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으나 주선율로 연주하였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제재곡 중간에 넣는 재미있는 소리도 잘 표현하였고, 리듬도 정확하였다.

2) 학생B는 화성반주일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으나 주선율로 연주하였을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제재곡 중간에 넣는 재미있는 소리도 잘 표현하였다.

3) 학생C는 화성반주일 때나 주선율로만 연주할 때나 모두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고 제재곡 중간 중간에 넣는 재미있는 소리도 표현하지 못했다.

4) 학생D는 화성반주일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으나 주선율일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제재곡 중간에 넣는 재미있는 소리도 표현을 잘 하였다.

5) 학생E는 화성반주일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으나 주선율일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또한 제재곡 중간에 넣는 재미있는 소리는 잘 표현하였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드는 등 율동도 같이 하였다.

6) 학생F는 화성반주일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였으나 주선율일 때는 노래를 잘 불렀다. 제재곡 중간에 넣는 재미있는 소리도 잘 표현했다.

<표 10> 가창반응 검사표(가창 4회)

번호	반응행동	2010년 10월28일						
		A	B	C	D	E	F	반응인원
1	제재곡중간에 재미있는 소리를 넣어 표현할 수 있다.	O	O	X	O	O	O	5
2	높 낮이가 있는 목소리를 낸다	O	O	X	O	O	O	5
3	노래 부르며 박수를 친다.	X	X	X	X	X	O	1
4	노래 부르며 율동을 부분적으로 한다.	X	X	X	X	O	X	1
5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는 못하나 부분 부분을 정확히 부른다.	X	O	X	X	X	X	1
6	화성반주일 때 노래를 잘 따라 부른다.	X	X	X	X	X	X	0
7	노래의 주선율을 연주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	O	O	X	O	O	O	5
8	가사가 비교적 정확하다.	O	O	X	O	X	O	4
9	음정이 비교적 정확하다.	X	O	X	X	X	X	1

자) 9차 음악 수업 참여 관찰

수업 제재곡은 ‘초록바다’(특수학교 음악 교과서 2권 P.98)이며, 수업에 쓰인 악기는 신디사이저이다. 교사가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연주한 후 모두 노래를 불러 보았다. 또한 제재곡을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부를 수 있도록 굳어진 입모양 풀어주기 위한 학습을 했다.

안면근육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굳어진 입을 풀어주어야 하므로 아에이오우로 기본 발성법을 연습시켰다.

<악보 10> 초록바다

**초록바다**

박경중 작사  
이계석 작곡

F Bb F  
초록빛바 닷 물 에 두손을담 그 - 면

F Am Bb C F  
초록빛바 닷 물 에 두손을담 그 면

F Bb C F F Bb  
파 - 란 하늘빛 물 - 이 들지요 어여쁜 초록빛

C F Gm C  
손 - 이 되지요 초록빛여 울물 에 두 - 발을

F F Bb C F  
담그면 물결이 살 - 랑 어루만 저 - 요

F Bb C F  
물결이 살 - 랑 어루만 저 요 -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기본 발성법을 잘 따라했으며,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동안 노래를 불러도 항상 작게 불러서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발성을 연습한 후 불렀을 때 지난 시간에 비해 노래소리가 더 커지고 가사가 정확하였다.

2) 학생B는 기본 발성법을 연습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했으며, 발성을 연습한 후 노래를 불러 보았을 때 가사를 정확히 표현하였고 소리를 아름답게 내려고 노력했다.

3) 학생C는 기본 발성법을 연습하였을 때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였고, 노래를 불러 보았을 때도 노래는 부르지 않고, 장난만 치는 등 학습분위기를 흐렸다.

4) 학생D는 기본 발성법을 연습하였을 때 작은 소리지만 열심히 하였고, 발성을 연습한 후에 노래를 배웠을 때 예전에 비해 가사를 정확히 표현하였고, 노래소리를 아름답게 내려고 노력했다.

5) 학생E는 기본 발성법을 연습하였을 때 열심히 따라하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박자를 자주 놓쳤고 늦게 나와서 노래를 마치 돌림노래처럼 불렀다.

6) 학생F는 기본 발성법을 연습하였을 때 열심히 따라했고, 상당히 재미있어 했다. 이 학생은 타 과목에 비해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기분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데 이 날은 기분이 매우 좋았는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따라했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표 11> 가창반응 검사표 (가창 5회)

과목	초록바다	날 짜	2010년 11월2일					
번호	반응행동	관찰대상						반응 인원
		A	B	C	D	E	F	
1	발성연습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O	O	X	O	O	O	5
2	노래소리를 아름답게 내려고 한다.	O	O	X	O	O	O	5
3	높 낮이가 있는 목소리를 낸다	O	O	X	O	O	O	5
4	노래 부르며 박수를 친다.	X	X	X	X	X	O	1
5	노래 부르며 율동을 부분적으로 한다.	X	X	X	X	X	X	0
6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는 못하나 부분 부분을 정확히 부른다.	X	O	X	X	X	X	1
7	화성반주일 때 노래를 잘 따라 부른다.	X	X	X	X	X	X	0
8	노래의 주선율을 연주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	O	O	X	O	O	O	5
9	가사가 비교적 정확하다.	X	X	O	X	O	X	2
10	음정이 비교적 정확하다.	X	O	X	X	X	X	1

차) 10차 음악 수업 참여 관찰

수업 제재곡은 ‘우리 산 우리 강’(특수학교 음악 교과서 2권 P.106)이며, 수업에 쓰인 악기는 신디사이저이다. 교사가 제재곡을 화성반주로 연주한 후 모두 노래를 불러 보았다. 이 곡은 2/4박자에 곡으로 정은 강박에 팽과리는 약박에 연주해보도록 연습시켰다.

<악보 11> 우리 산 우리 강

**우리 산 우리 강**

윤석중 작사  
손대업 작곡

1. 북 쪽 으 로 가 면 백 두 산  
2. 북 쪽 으 로 가 면 백 두 만 강

남 쪽 으 로 가 면 한 라 산  
남 쪽 으 로 가 면 낙 동 강

우 큰 거 진 수 에 풀 서 바 람 갑 막 아 들 주 만 는 날  
우 큰 거 진 수 에 풀 서 바 람 갑 막 아 들 주 만 는 날

정 을 다 거 운 운 산 강 우 리 리 산 강

다음은 음악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수업태도와 인지상태를 관찰한 기록이다.

1) 학생A는 화성반주로 노래할 때는 제재곡을 잘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만 연주해주었을 때는 잘 불렀다. 또한 징을 들고 있었는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강박에 징을 잘 연주했다.

2) 학생B는 화성반주로 노래할 때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으나 주선율로 연주해주었을 때는 잘 불렀다. 이 학생은 관찰학생 중 리듬감이 가장 발달한 학생으로 썰과리를 들고 있었는데 약박에 잘 연주했고, 연주가 끝난 후에는 징을 들고 연주해 보고 싶다고 해서 징을 들고 연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징도 강박에 맞게 잘 연주했다.

3) 학생C는 인지가 있는 학생이나 항상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습관이 있는 학생이다. 이날도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으며 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다.

4) 학생D는 가끔 책상에 기대어 자는 버릇이 있는 데 이날도 책상에 기대어 자다가 다른 학생이 연주하는 징소리에 화들짝 깨서 모두들 웃었다. 그러나 교사가 썰과리를 주고 약박에 연주해 보라고 했을때 약박에 썰과리를 잘 연주했다.

5) 학생E는 징을 가지고 연습했는데 강박에 잘 나왔고 이날 수업을 매우 흥미있어 하였고, 다른 학생에 비해 신나게 연주했다.

6) 학생F는 팽과리를 연습했는데 교사의 지시에 따라 약박에 잘 연주하였고, 리듬에 맞춰 머리와 몸을 움직이는 등 신체를 이용해서 리듬을 타는 모습도 보였다.

<표 12> 리듬반응검사표 (리듬 5회)

번호	반응행동	2010년 11월4일							반응 인원
		A	B	C	D	E	F		
1	리듬악기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O	O	X	O	O	O	5	
2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O	O	X	O	O	O	6	
3	악기 소리를 약하게 낸다.	O	X	X	O	O	O	4	
4	악기 소리를 명료하게 낸다.	O	O	X	O	O	O	5	
5	악기를 정확한 박자로 연주할 수 있다.	O	O	X	O	O	O	5	
6	리듬패턴에 맞추어 연주하나 박자가 자주 틀린다.	X	X	O	X	X	X	1	
7	연주법에 맞추어 악기연주를 할 수 있다.	O	O	X	O	O	O	5	
8	악기소리와 연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X	X	O	X	X	X	1	
9	박자, 리듬패턴, 연주법에 맞추어 연주를 한다.	O	O	X	O	O	O	5	

## 5.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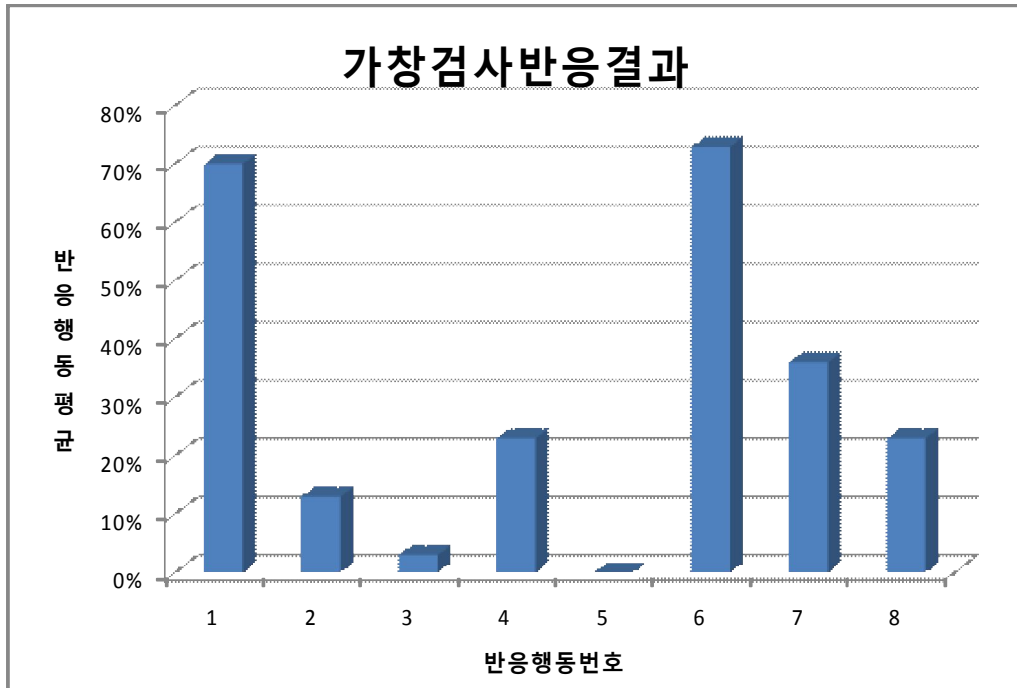
### 가. 음악수업관찰에 공통된 반응검사 결과

정신지체중학생의 음악수업을 10회에 걸쳐 리듬과 가창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음악반응 검사는 가창 5회와 리듬 5회로 실시하였고, 공통된 반응검사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가창반응검사 결과표

번호	반응행동						합계	평균
		1회	2회	3회	4회	5회		
1	높 낮이가 있는 목소리를 낸다.	4	3	4	5	5	21	70%
2	노래 부르며 박수를 친다.	1	1	0	1	1	4	13%
3	노래 부르며 율동을 부분적으로 한다.	0	0	0	1	0	1	3%
4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는 못하나 부분 부분을 정확히 부른다.	2	2	1	1	1	7	23%
5	화성반주일 때 노래를 잘 따라 부른다.	0	0	0	0	0	0	0%
6	노래의 주선율을 연주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	4	4	4	5	5	22	73%
7	가사가 비교적 정확하다.	1	1	3	4	2	11	36%
8	음정이 비교적 정확하다.	2	2	1	1	1	7	23%

<차트 1> 가창반응검사 결과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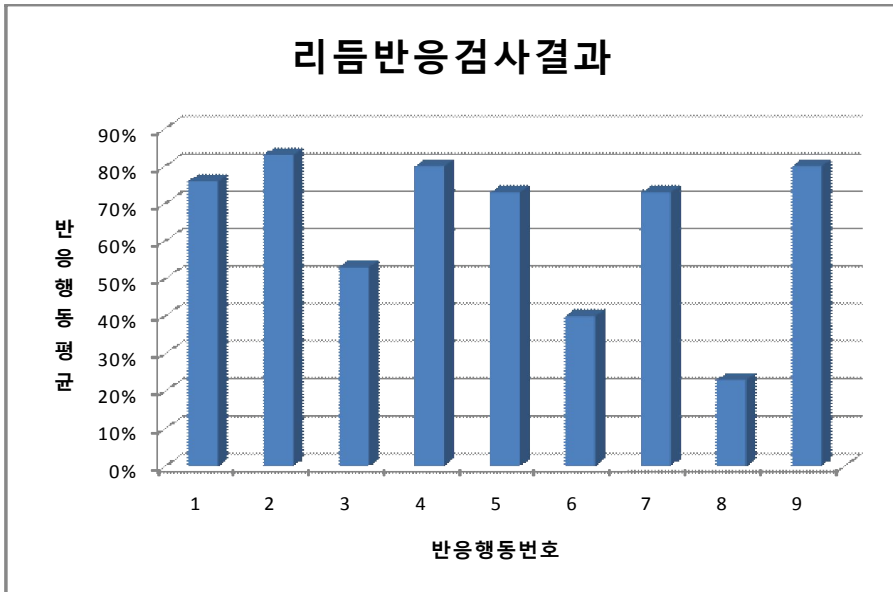


<차트 1>은 가창반응 검사 결과표를 차트화 시킨 것이다. 위에 차트를 보면 1번(높 낮이가 있는 목소리를 낸다)과 6번(노래의 주선율을 연주하면 노래를 잘 부른다)에 반응 행동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찰결과로 화성적인 반주보다는 주선율을 연주하는 것이 제재곡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리듬반응 검사결과표

번호	반응행동						합 계	평 균
		1회	2회	3회	4회	5회		
1	리듬악기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5	5	5	3	5	23	76%
2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6	6	5	2	6	25	83%
3	악기 소리를 약하게 낸다.	4	4	4	2	4	16	53%
4	악기 소리를 명료하게 낸다.	5	5	4	4	5	24	80%
5	악기를 정확한 박자로 연주할 수 있다.	4	5	4	4	5	22	73%
6	리듬패턴에 맞추어 연주하나 박자가 자주 틀린다.	3	4	2	2	1	12	40%
7	연주법에 맞추어 악기연주를 할 수 있다.	4	5	4	4	5	22	73%
8	악기소리와 연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1	1	1	3	1	7	23%
9	박자, 리듬패턴, 연주법에 맞추어 연주를 한다.	5	5	5	4	5	24	80%

<차트 2> 리듬반응검사 결과 차트



< 차트 2>는 리듬반응표를 차트화한 것이다. 관찰결과 8번(악기소리와 연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번호들은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 관찰통계를 통해 정신지체중학생 중 경도와 중등도에 해당하는 학생은 음정보다 리듬습득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음악수업에 나타난 개별적인 반응 관찰결과

정신지체중학생의 음악수업을 10회에 걸쳐 리듬과 가창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음악반응 검사는 가창 5회와 리듬 5회로 실시하였고, 개별적인 반응검사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5차시 음악수업관찰에 쓰인 개별적 리듬반응검사표

곡목	어린이 왈츠	날 짜	2010년 10월19일						반응 인원
			대상학생						
번호	반응행동	A	B	C	D	E	F		
1	신체리듬치기를 리듬에 맞게 표현하였다.	O	O	X	X	O	O	4	
2	도움을 받아서 리듬치기를 표현하였다.	O	O	X	X	O	O	4	
3	강박은 표현하지만 약박은 표현하지 못한다.	X	X	X	X	X	X	0	
4	신체리듬치기를 마구 크게 친다.	X	X	O	X	X	X	1	
5	신체리듬치기를 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O	O	X	X	O	O	4	

<표 15>는 5차시에 제재곡 ‘어린이 왈츠’를 수업한 개별적 관찰 기록이다. 제재곡의 리듬인 3/4박자에 맞게 손뼉치기를 하였고, ‘신체리듬치기를 리듬에 맞게 표현하기’와 ‘도움을 받아서 리듬치기를 표현하기’, ‘신체리듬치기를 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찰 결과로써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체리듬활동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신

체를 이용하여 리듬을 맞추며 제재곡을 익히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 6차시 음악수업관찰에 쓰인 개별적 가창반응 검사표

곡목	숲 속을 걸어요	날 짜	2010년 10월21일					
번호	반응행동	관찰대상						반응 인원
		A	B	C	D	E	F	
1	음정차가 크거나 작아도 모두 알아듣는다.	X	X	X	X	X	X	0
2	음정차가 클 때 알아듣는다.	O	O	X	X	O	O	4
3	음정차가 작을 때 알아듣는다.	X	X	X	X	X	X	0

<표 20>은 6차시 제재곡 ‘숲 속을 걸어요’를 수업한 개별적 관찰 기록이다. 6차시에는 소리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가에 중점을 두고 관찰하였는데 ‘음정차가 클 때는 알아 듣는다’가 4명이고 ‘음정차가 작을 때 알아 듣는다’는 1명도 없었다. 이러한 관찰결과 정인지체 학생들은 음정차가 작을 때는 알아듣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다. 관찰한 학생의 개인별 음악특성

1) 학생A는 경도정신지체학생으로 성격은 고집이 세고, 행동은 소극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 학생은 관찰 6명중 가장 인지가 발달되어 있고, 음악수업중 총 10회에 걸쳐 가창과 리듬을 관찰한 결과 음정과 리듬이 가장 정확하였다. 그러나 6차 음악수업관찰에서는 음정차가 작을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7차 음악수업관찰에서는 성격이 소심하여도 노래를 부르며 제재곡에 맞추어 손뼉을 치거나 몸을 흔드는 등 율동을 표현하여 음악을 즐겼고, 9차 음악수업관찰에서는 기본발성연습을 한 후에 항상 작게 부르던 노래 소리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학생B는 경도 정신지체학생으로 성격은 적극적이고 꼼꼼한 성격이며 주의 집중력도 좋은 편이다. 이 학생은 난타를 1년간 배웠으며 리듬악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실제로 연주도 잘 하였다. 2차 음악수업관찰에서는 작은북을 약박에 치는 활동을 하였는데 정박에 나왔으나 적극적인 성향때문인지 약박을 크게 연주하였다. 9차 음악수업관찰에서는 기본발성을 연습한 후 노래를 불렀을 때 가사를 정확히 표현하였고 소리를 아름답게 내려고 노력하였다. 이 학생은 학생A와 함께 학습효과가 좋은 편이다.

3) 학생C는 중등도 정신지체학생이며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주의집중력은 상당히 결핍하여 있었고 피성을 잘 지르며 음악수업시간에도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였다. 이 학생은 악기소리를 마구 크게 내거나 또는 악기소리나 연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차 음악수업관찰에서 큰북을 강박에 맞게 연주하였고 3차 음악수업

관찰에서는 교사가 연습시킨 리듬패턴을 캐스터네츠로 잘 연주하였다. 노래 선율을 익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리듬패턴을 익히는 것은 마음이 안정이 되면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과제를 잘 수행하였다.

4) 학생D는 중등도 정신지체학생이며 의지력이 약하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이 학생은 10회에 걸쳐 음악수업을 관찰하는 동안 책상에 엎드려 있는 날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컨디션이 좋거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제시한 리듬패턴이나 노래를 어느 정도 익히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5) 학생E는 중등도 정신지체학생이며 수업시간에 자리가탈이 빈번한 학생이다. 그러나 음악수업시간에는 리듬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등 율동에도 적극적이었고, 리듬감도 상당히 좋았다. 그러나 6차 음악수업관찰에서 관찰대다수가 그렇듯이 음정차가 작을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등 선율을 익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6) 학생F는 중등도 정신지체학생으로 생활에 전반적으로 행동이 위축되어 있고 말을 잘 하지 않으나 집단 활동에는 잘 참여하는 편이며 음악에는 관심이 많다. 관찰학교에는 노래연습실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노래연습실에서의 활동에는 적극적이었고 노래부를 때 음정과 박자도 정확하게 불렀다. 호기심이 많아 악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율동을 따라하는 등 학습활동에 대한 적응력은 높은 편이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정신지체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음악은 끊임없이 반복되는가 하면 특수 학교에서 집단으로 교사가 미리 계획하여 실행하는 음악교육 활동외에도 하루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비롯하여 교사가 미리 계획하지 않은 가운데 즉흥적으로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정신지체 학생은 감각·운동기와 전조작기에 해당되며 생활 연령상 구체적 조작기까지 발달할 수 있다. 정신지체중학생의 음악수업과 생활적인 면을 관찰한 결과, 최종도학생은 대부분 감각·운동기에 머무르고 있었고, 경도와 중등도학생은 전조작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 정신지체중학생을 대상으로 인지발달론에 근거하여 정신지체중학생의 인지발달상태를 파악하고, 음악수업시간을 통해 가창과 리듬 중심의 음악반응을 관찰하였다. 또한 정신지체중학생 중 훈련가능급인 경도와 중등도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10회에 걸쳐 음악수업을 관찰하였다.

관찰 내용은 가창과 리듬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매시간 마다 핸드벨, 큰북과 작은북, 케스터네츠, 손뿌치기, 리듬에 맞추어 율동하기, 징과 팽과리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음악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지체학생들이 어떻게 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참여관찰을 통해 느낀 정신지체중학생중 경도와

중등도에 해당하는 학생의 가창 및 리듬반응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창에 있어서 화성적인 반주로 제재곡을 배우는 것보다는 주선율로 반주하였을 때 제재곡을 신속하게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창에 있어서 수업도입부에 기본 발성법을 연습한 후에 노래를 배우면 보다 더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제재곡을 배울 때 노래와 율동을 함께 하면 박자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음악수업을 즐겁게 했다.

넷째, 여러 제재곡을 가지고 수업한 결과 도약보다는 순차진행의 곡에서 박자, 연주법을 빨리 습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음정의 습득보다 리듬의 습득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음악을 공부하는 데 있어 인지발달정도는 중요하지만 관찰결과 인지가 높다고 해서 음악을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관찰결과를 통해 얻은 정인지체중학생 중 경도와 중등도에 해당하는 지체학생의 음악수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곡을 배울 때 화성적인 반주로 배우는 것보다 주선율로 반주하여 노래를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음악수업에 있어 제재곡이 순차진행으로 이루어진 곡을 많이 배운 후 도약이 있는 곡으로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리듬을 익힐 때는 신체를 이용하면 보다 더 리듬공부에 도움이 된다.

넷째, 보호관찰급인 최중도학생은 지각·표현활동보다는 감상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및 간행본

- 김영옥외, (2005)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
- 김원경외, (2008) 『최신평수교육학』, (학지사)
- 박원희외, (2010) 『함께 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특수교육학』 (교육과학사 )
- 백은희, (2005) 『정신지체 -이해와 교육-』 (교육과학사)
- 석문주, (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 신중호외, (2009) 『정신지체』, (시그마프레스)
- 이옥형외, (2007) 『교육심리학』 (집문당)
-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출판사)
-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2002). Mental Retardati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10th ed). Washington, DC:Author.

### 교과서

- 민천식외, (2009) 『특수학교기본교육과정 음악 2』 (교육과학기술부)

### 학위논문

- 강선희 (1999) “인지발달이론의 음악교육적응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구 (2001) “인지발달론에 근거한 초등학교 음악 개념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희 (2008)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음악수업실태 및 특수교사의 음악  
전담교사에 대한 인식”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혜은 (2002)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예능교과서 분석과 음악교과 교육  
과정의 개선방안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최하람 (1986), “정신지체아의 음악반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Abstract

Music has similar functions to a language for mentally retarded students, and help them to relieve their stress singing a song and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Accordingly, it is important for tutoring mentally retarded students in music to apprehend characteristics and levels of cognitive development of the mentally retarded students and seek for proper teaching method to their level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pprehend cognitive states and musical responses of mentally retarded middle school students and suggest a future direction for a music class.

I carried out participant observations of mentally retarded middle school students' music classes around singing and rhythm response total 10 times from October 5th 2010 to November 4th 2010.

The observation targets are 2 students in low-grade retardation and 4 students in middle-grade retardation among mentally retarded middle school students.

10 times of the music class observations were comprised of 5 singing response tests(the 1st, the 4th, the 6th, the 8th, and the 9th) and 5 rhythm response tests(the 2nd, the 3rd, the 5th, the 7th, and the 10th), and the first was to check whether they can play the main codes of the test piece 'It's a sprout'(새싹들이다) with a handbell to

meet teacher's guidance, and the second was to play strong beats and light beats of the test piece 'Frog(개구리)' with a base drum and a small drum.

The third was to play the rhythm pattern of the test piece 'Oh! Victory Korea'(오! 필승코리아) with castanets, the fourth was to study an eighth rest with the test piece 'Fishing'(고기잡이), and the fifth was to clap to meet the three-quarter time with the test piece 'Children's Waltz'(어린이 왈츠).

The sixth was to find out whether they can distinguish high tones and low tones with the test piece 'Let's walk in the woods'(숲속을 걸어요), and the seventh was to beat rhythms freely using a part of body to the tune of the test piece 'Let's Sing, Let's Dance'(노래하자 춤추자).

The eighth was to sing the test piece 'Stone and Water'(돌과 물) inserting interesting sounds, and the ninth was to learn the song 'Green Sea'(초록바다) after acquiring basic phonation. And the last was to play the rhythm of 'Our mountain and Our river'(우리산 우리강) using a Jing and Kwaenggary.

From the result of ten times of music class observations, I understood mentally retarded students acquired rhythm faster than tune, and they concentrated at learning with a main melody more than with a harmonic accompaniment in singing.

The suggestion about mentally retarded middle school students' music class from the results of this observation is that it's more

effective to learn a song through the lead rather than a harmonic accompaniment, and it's more effective to concentrate on appreciating activities rather than perceiving and expressing activities for the students in profound mental retardation, the grade of observation for protection.

There are many theses for the guidance plan of mentally retarded students' class, but not many observation researches. I expect observation researches will be conducted more actively as I tried in this research.